

가해 기초자료

# 연중 제126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 악인의 회심

에제키엘

~~~~~

유다의 사제이며 바빌론 1차 유배 때 바빌론으로 끌려간 예언자.

개인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침

“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에제 18,26-27)

”

우리는 종종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얼마나 행했는지를 내세우며  
지금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한다.

그러나 하느님은 과거에 머무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이시고,

선인이든 악인이든 과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저지르는 행위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

“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모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에제 18,25)

”



## 생각을 바꾼 맏아들

복음에서 두 아들 중 아버지의 뜻을 따른 이는 맏아들이었다.

“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마태 21,31)

”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다.

이와 달리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결국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과거의 삶에 연연해하지 말고, 지금 의롭게 살라고 강조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필리피서는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저술함.

감옥에 갇힌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그리스도 찬가(필리 2,6-11)

*~~~~~*

1. 전반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필리 2,5)

”

예수님의 마음은 하느님의 아들이었지만 기꺼이 하느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상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마음

2. 후반부: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와 "주님"이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 모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필리 2,11)

”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해야 할 일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

결국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은 결국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 ✓ 케노시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리스도 찬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영광을 받는 그 순간에도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돌아서서  
그분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